



하이클래스  
군무원

문정호 국어

2020.7.18. 군무원 국어 7급 기출문제



2020.7.18. 시행

## 2020년 군무원 국어 7급

01.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                      ② 맥락
- ③ 필자                      ④ 글의 내용

01

下【비문학】

정답 ③

**풀이** 글쓰이를 뜻하는 필자는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과 관련이 없다. 좋은 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자를 고려할 수 있지만 좋은 글과는 필자와 관련이 없다.

**오답**

- ① 독자는 좋은 글을 선택하는 주체이므로 기준에 포함이 된다.
- ② 맥락은 글의 흐름이며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준에 포함이 된다.
- ④ 글의 내용은 좋은 글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02. 다음 글의 ㉠~㉣ 중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말은?

공주·부여와 익산 일대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탄력을 얻고 있다. 충청남도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 유산 등재 1개월을 맞아 공주·부여 유적지를 ㉡ 탐사한 관람객을 조사해 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제 역사 문화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확인된 것을 계기로 관람객들이 증가하면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보존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 기구인 이코모스가 충청남도에 대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권고한 것도 주목할 일이다. 이코모스는 지구의 ㉢ 개별 관광 관리 계획 및 유산별 방문객 관리 계획 수립·시행, 등재 유적 보호를 위한 지구 내 사유 토지 공공관리, 송산리·능산리 고분벽화 모니터링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중앙 정부와 국회는 충청남도가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 경주하는 것을 지역이기주의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비단 특정 지역만이 아닌 국가적인 쾌거다. 이를 잘 보존·관리하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가꾸는 일은 국가 차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02

中【어휘 한자어】

정답 ②

**풀이** ㉢에는 '탐사(探査)'는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살살이 더듬어 조사함'이다. 관람객의 행동을 나타내야 하므로 '실지로 보고 그 일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넓힘'의 뜻인 '견학(見學)'이나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의 뜻인 '답사(踏査)'가 적절하다. 지구의 관광 관리 계획을 권고하는 이므로 '여럿 중에서 하나씩 따로 나누어 있는 상태'의 뜻인 '개별(個別)'은 어울리지 않는다. '개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 '보존(保存)',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이다. 주체인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보존'한다는 의미의 문장이므로 ㉠은 적절한 사용이다. ㉡ '경주(傾注)'는 '힘이나 정신을 한곳에만 기울임'이다. 중앙 정부와 국회는 충청남도가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를 위해 경주한다는 뜻이므로 ㉡은 적절한 사용이다.

### 03. 속담의 뜻을 잘못 풀이한 것은?

- ① 남의 말이라면 쌍지팡이 짚고 나선다. → 남의 허물에 대해서 시비하기를 좋아한다.
- ②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하여야 한다.
- ③ 말 같지 않은 말은 귀가 없다. →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은 널리 퍼진다.
- ④ 남의 말도 석 달 → 소문은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만다.

03

中 [속담]

정답 ③

풀이 '말 같지 않은 말은 귀가 없다'는 '이치에 맞지 아니한 말은 못 들은 척한다는 말'을 뜻하는 속담이다.

### 04. 다음 글에서 ㉠, ㉡에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인도의 오랜 고전 『우파니샤드』에는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다.

말이 없다면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알 수 없으며 참과 거짓,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을 알 수 없다. 말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말에 대해 ( ㉠ )하라.

진실로 언어가 없다면 세계가 없고 따라서 인생이 없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이렇듯 오래고도 깊은 사념은 인간의 문화에 대한 모든 비평 속에서 계속하여 심각하게 다루어져 왔다. 인류 문화와 사고의 역사는 결국 언어에 대한 문제를 싸고돌면서 전개된 것에 불과하다. 언어의 내면적인 ( ㉡ )이 깊이를 더할 때 많은 학구적 업적이 시대를 따라 변천하여 왔던 것이다.

- ① ㉠: 默想, ㉡: 考察
- ② ㉠: 墨床, ㉡: 古刹
- ③ ㉠: 默想, ㉡: 古刹
- ④ ㉠: 墨床, ㉡: 考察

04

下 [어휘 한자어]

정답 ①

풀이 '묵상(默想)'은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이다. 앞에서 말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므로 ㉠에는 이를 깊이 생각한다는 '묵상(默想)'이 적절하다. '고찰(考察)'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이다. 언어의 내면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고찰(考察)'이 적절하다.

오답

- 묵상(墨床): 먹을 올려놓고 쓰는 받침.
- 고찰(古刹): 역사가 오래된 옛 절.

### 05. 다음 중 '잇몸소리'이면서 '파열음'인 것은?

- ① ㄴ
- ② ㄷ
- ③ ㅅ
- ④ ㅈ

05

下 [이론문법]

정답 ②

풀이 'ㄷ'은 소리 내는 방법으로는 무성음이며 파열음이며 예사소리이다. 소리내는 위치로는 혀끝소리 또는 잇몸소리(치조음)이다.

참고 자음 분류표

| 조음방법 \ 조음위치   |             | 두입술<br>(순음) | 윗잇몸,<br>혀끝<br>(설음)<br>(치조음) | 경구개,<br>혓바닥<br>(구개음) | 연구개,<br>혀뒤<br>(연구개음) | 목청<br>(후음) |
|---------------|-------------|-------------|-----------------------------|----------------------|----------------------|------------|
| 안<br>울림<br>소리 | 파<br>열<br>음 | 예사<br>소리    | ㅂ                           | ㄷ                    |                      | ㄱ          |
|               |             | 된소리         | ㅃ                           | ㄸ                    |                      | ㄲ          |
|               |             | 거센<br>소리    | ㅍ                           | ㅌ                    |                      | ㅋ          |
|               | 파<br>찰<br>음 | 예사<br>소리    |                             | ㅈ                    |                      |            |
|               |             | 된소리         |                             | ㅊ                    |                      |            |
|               |             | 거센<br>소리    |                             | ㅌ                    |                      |            |
| 울림<br>소리      | 마<br>찰<br>음 | 예사<br>소리    |                             | ㅅ                    |                      | ㅎ          |
|               |             | 된소리         |                             | ㅆ                    |                      |            |
| 울림<br>소리      | 비음(鼻音)      |             | ㅁ                           | ㄴ                    |                      | ㅇ          |
|               |             | 유음(流音)      |                             | ㄹ                    |                      |            |

[06~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더니라.

스스로의  
㉡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네저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마음의 기(旗)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늪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어난다.

㉣ 황제의 항서(降書)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  
(悲哀)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06. 위의 시에서 '기(旗)'가 표상하는 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순수한 삶                      ② 절제된 사랑  
③ 기도하는 마음                ④ 시적 자아의 희원

06

中 【현대문학】

정답 ②

풀이 김남조 시인의 현대시 〈정념의 기〉이다. 이 시는 종교적인 기원을 담은 시이다. 화자의 기도는 혼란과 늪우침에서 벗어나기 위해 드리는 종교적 의식의 행위이다. 이 시에서 '기'는 흔들리는 화자의 마음이며 순수한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신념이기도 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내면의 평화를 희원(希願: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의식이기도 하다. 절제된 사랑은 이 시의 감상과 관련이 없다.

07. ㉠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한 것은?

- ① 자성                              ② 자책  
③ 체념                              ④ 회한

07

中 【현대문학】

정답 ①

풀이 '자성'은 '자성(自省)'인 경우 '자기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함'이 뜻이며, '자성(自醒)'인 경우 '스스로 깨달아 앎'이 뜻이다. ㉠에서 화자는 무엇과도 접할 수 없는 공간에서의 자신과 고독을 느끼면서, 신(神)의 존재 앞에 자신을 스스로없이 드러내 보이는 자성(自省)을 보여 주고 있다. 나머지는 ㉠과 관련이 없다.

오답

- ② 자책(自責):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③ 체념(諦念):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④ 회한(悔恨): 뉘우치고 한탄함.

08. ㉠~㉣ 중 시적 자아의 흔들리는 내면을 표출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08

下 【현대문학】

정답 ①

풀이 혼란과 열기는 시적 자아의 흔들리며 고뇌하는 내면을 뜻한다.

오답

- ② 시적 자아는 흔들리는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해 눈길 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③ 향서(降書)는 항복을 선언하고 항복에 대한 여러 조건 따위를 정한 문서이다. ㉢은 시적 자아의 슬픈 감정이 마음 깊이 가라앉아 있음을 뜻한다.  
④ ㉢은 시적 자아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자아의 내면과는 관련이 없다.

참고 김남조, <정념의 기>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어조: 애상적 어조, 고백적 어조
- 성격: 낭만적, 종교적, 애상적
- 제재: 기도
- 주제: 순수한 삶에 대한 열망과 종교적 희원(希願)
- 출전: 『정념(情念)의 기(旗)』(1960)
- 해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한 폭의 기(旗)에 비유하고 있다. 사랑이나 그리움을 동경하는 마음이 한 자리에 있지 않고 깃발처럼 흔들리며 방황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두 종류의 사랑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혼란과 열기'로 상징되는 육체적·인간적인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사랑이다. 이런 점에서, 화자는 현재 '혼란과 열기' 속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맑은 영혼과 순수하고 정신적인 사랑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념의 기'는 깃발의 모습을 빌려 인간의 세상에서 '절대자'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화자를 상징하고 있으며, 깃대에서 펄럭이고 있는 깃발의 모습은 그러한 영원과 현실적 고뇌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화자의 내면 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9. 다음 글에서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일의 시간은 오늘날 시간 전체를 잠식해 버렸다. 우리는 휴가 때뿐만 아니라 잠잘 때에도 일의 시간을 데리고 간다. 지쳐 버린 성과 주체는 마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잠이 든다. 긴장의 이완 역시 노동력의 재충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의 한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 ㉠ )도, 다른 시간을 만들어내지도 못한다. 그것 역시 가속화된 일의 시간이 낳은 결과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와는 달리, ( ㉡ )는 오늘날 당면한 시간의 위기, 시간의 질병을 극복할 수 없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다른 시간, 일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간을 생성하는 시간 혁명이다.

- ① ㉠: 빠르게 살기    ㉡: 빠르게 살기  
② ㉠: 느리게 살기    ㉡: 느리게 살기  
③ ㉠: 빠르게 살기    ㉡: 느리게 살기  
④ ㉠: 느리게 살기    ㉡: 빠르게 살기

09

中 【비문학】

정답 ②

풀이 한병철의 글 <시간의 향기> 중 일부이다. 글에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느리게 살기'는 한때 사람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의 시간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으므로 휴가의 시간이나 잠을 자는 시간인 느리게 살기는 일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결국 느리게 살기는 현대인이 당면한 시간의 위기나 질병을 극복할 수 없다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느리게 살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의 생성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10. 제시된 단어들의 발음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짧네요      ㉡ 맑거나      ㉢ 뽕지

- ① ㄱ: [잘려요] - ㄴ: [막꺼나] - ㄷ: [땀.찌]  
 ② ㄱ: [잘려요] - ㄴ: [말꺼나] - ㄷ: [떨.찌]  
 ③ ㄱ: [잡네요] - ㄴ: [막꺼나] - ㄷ: [떨.찌]  
 ④ ㄱ: [잡네요] - ㄴ: [말꺼나] - ㄷ: [땀.찌]

10 下 【어문규정 표준발음법】

정답 ②

**풀이** ㉠ ‘짚대[짚따]’는 ‘짚아[짚버]’, ‘짚으니[짚브니]’, ‘짚고[짚꼬]’, ‘짚지[짚찌]’로 발음한다. ‘짚네요’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브’이 탈락하고 ‘네’의 ‘ㄴ’이 ‘ㄹ’로 유음화한다. ㉡ ‘맑대[막따]’는 ‘맑아[말가]’, ‘맑으니[말그니]’, ‘맑고[말꼬]’, ‘맑지[막찌]’로 발음한다. ‘맑-’이 받침 ‘ㄹ’은 ‘ㄱ’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 ‘뚝대[뚝따]’는 ‘뚝어[뚝버]’, ‘뚝으니[뚝브니]’, ‘뚝고[뚝꼬]’, ‘뚝지[뚝찌]’로 발음한다.

11. 다음은 어순 병렬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어순을 보이는 것은?

국어에는 언어 표현이 병렬될 때 일정한 규칙이 반영된다. 시간 용어가 병렬될 때 일반적으로는 자연시간의 순서를 따르거나 화자가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가까운 쪽이 앞서고 멀어질수록 뒤로 간다. 공간 관련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위쪽이나 앞쪽 그리고 왼쪽과 관련된 용어가 앞서고 아래쪽이나 뒤쪽 그리고 오른쪽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중에 온다.

- ① 꽃이 피고 지고 한다.
- ②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보다.
- ③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라졌다.
- ④ 문 닫고 들어와라.

## 11 下【어법】

**정답** ④

**풀이** 흔히 “문 닫고 들어와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다. 문을 닫고 들어올 수 없으므로 “들어오면 문 닫아라.”라고 말해야 한다. 어순병렬 원리 중에서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오답

- ① 꽃이 핀 후 지는 것이므로 시간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 ② 수입(벌어들임) 후에 지출(사용함)을 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 ③ 머리끝은 위에 해당되고 발끝은 아래에 해당되므로 공간 관련 순서를 따르고 있다.

## 12. 문장의 확장 방식이 다른 것은?

- 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 ② 철수가 말도 없이 가버렸다.
- ③ 나는 그가 귀국했다고 들었다.
- ④ 봄이 오면 꽃이 핀다.

12

中 【이론문법】

정답 ④

**풀이** '문장의 확장 방식'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몰라 헷갈릴 수 있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형성되는 홑문장이 있지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으로 확장되면 겹문장이 되어 보다 복잡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문장의 짜임 문제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④는 '봄이 오면'이 원인이고 '꽃이 핀다'가 결과이므로 인과 관계가 형성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안은 문장이다.

**오답**

- ①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피우는'이 되어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② '철수가 말도 없이'가 '가버렸다'를 수식하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③ '그가 귀국했다'가 간접 인용된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 13. 밑줄 친 ㉠, ㉡, ㉢을 한자로 바르게 바꾼 것은?

문인(文人)들이 흔히 대단할 것도 없는 신변잡사(身邊雜事)를 즐겨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의 편모(片貌)와 생활의 정회(情懷)를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속악(俗惡)한 시정잡사(市井雜事)도 때로는 꺼리지 않고 쓰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인생의 모순과 사회의 ㉠ 부조리를 여기서 뼈아프게 느꼈기 때문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요, 내 프리즘으로 통하여 재생된 자연인 까닭에 새롭고, 자신은 주관적인 자신이 아니요 ㉡ 응시해서 얻은 객관적인 자신일 때 하나의 인간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감정은 ㉢ 여과된 감정이라야 아름답고, 사색은 발효된 사색이라야 정이 서리나니, 여기서 비로소 사소하고 잡다한 모든 것이 모두 다 글이 되는 것이다.

㉠

㉡

㉢

- |       |    |    |
|-------|----|----|
| ① 不條理 | 凝視 | 濾過 |
| ② 不條理 | 鷹視 | 勵果 |
| ③ 否條理 | 凝視 | 勵果 |
| ④ 否條理 | 鷹視 | 濾過 |

13

【한자 한자어. 난이도 중】

정답 ①

**풀이**

- 부조리(不 아닌가, 條 다스릴 조, 理 다스릴 리):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
- 응시(凝 응길 응, 視 볼 시):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봄.
- 여과(濾 거를 여, 過 지날 과): 「1」 거름종이나 여과기를 써서 액체 속에 들어 있는 침전물이나 입자를 걸러 내는 일. 「2」 주로 부정적인 요소를 걸러 내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

- 응시(鷹 매 응, 視 볼 시): 매처럼 날카롭게 노려봄.
- 여과(勵 힘쓸 여, 果 열매 과): 『역사』 조선 시대에 둔, 토관직(土官職)의 정육품 무관 벼슬.

14. 다음 중 단어의 의미 변화를 잘못 나타낸 것은?

- ① 겨레: [종족] → [민족]
- ② 놈: [평칭] → [비칭]
- ③ 얼굴: [안면] → [형체]
- ④ 끼: [시간] → [식사]

14

中 [단어 의미론]

정답 ③

**풀이** '얼굴'은 '몸 전체'의 뜻에서 '넋[面]'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오답**

- ① '겨레'는 의미가 확장된 사례이다.
- ② '놈'은 의미가 축소된 사례이다.
- ④ '끼'는 의미가 이동한 사례이다.

**참고** 의미의 확장과 축소

의미의 확장은 하나의 표현으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싶은 언중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세수'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손을 씻는 행위만을 뜻하였으나, 손뿐만 아니라 얼굴을 씻는 행위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얼굴을 씻는 행위를 지칭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이처럼 의미 확장은 인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에 의미의 축소는 특정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 싶은 언중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미안'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남녀 모두를 지칭하였는데, 아름다운 여성만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면서 아름다운 남자, 혹은 잘생긴 남자를 뜻하는 말로 '미남'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의미 축소는 표현의 정확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15. 다음 중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청자의 어떤 감정에 호소할 것인가?
- ②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태도로 말할 것인가?
- ③ 주장이 분명하고 근거가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가?
- ④ 구체적 사례, 객관적 통계 자료, 전문가의 의견 등을 어떻게 근거로 활용할 것인가?

15

下 [화법]

정답 ②

**풀이** 화법에서 설득을 위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성적 설득전략', '감성적 설득전략', '인성적 설득전략'이 있다. ②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말하기이므로 이성적 설득전략에 해당된다.

**오답** ① 감성적 설득전략, ③ 이성적 설득전략, ④ 이성적 설득전략

**참고** 화법에서 설득의 전략

- ㉠ 이성적 설득전략: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략(통계자료, 전문가 의견, 역사적 사실 등)
- ㉡ 감성적 설득전략: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슬픔, 분노, 욕망, 행복 등)
- ㉢ 인성적 설득전략: 화자의 됨됨이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에 신뢰를 갖게 하는 전략(화자의 품성, 전문성, 진지한 자세 등)

16.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게 묶인 것은?

영화를 보면 어떤 물체를 3차원 입체 스캐너에 집어넣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스캔을 한 뒤 기계가 왔다 갔다 왕복운동을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스캐닝 했던 물체와 똑같은 물체가 만들어지는 ( ㉠ )이 나온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런 허구 같은 상황,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물체를 3차원 스캔하거나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서 입체 모형으로 만들어내는 이 마법 같은 기계인 3D 프린터가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3D 프린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 ㉡ ) 생산이다. 그간 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금형을 만들어서 샘플을 찍어내거나 수작업으로 모형을 만들어냈고, 이후에 수정하거나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3D 프린터로 샘플을 만들어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한 후에 금형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 개발 기간 단축에도 큰 도움이 된다.

3D 프린터는 ( ㉢ )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체에 무해한 종류의 금속이나 플라스틱수지 또는 인공뼈 소재를 이용해서 유실된 뼈 부분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 전에 실제와 거의 동일한 인체 구조물로 미리 연습을 하도록 돕기도 한다. 또한 큰 사고로 얼굴의 일부가 크게 손상되거나 유실된 환자를 위해 정교하게 제작된 일종의 부분 가면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아직은 3D 프린터가 일반 가정이나 우리의 실생활에 깊게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 ㉣ ) 우리 생활에 정말로 녹아든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3D 프린터 산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다. 정부와 대기업의 관심도 아직 미진하여 교육기관의 3D 프린터 도입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처음 큰 한걸음을 내딛어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 ㉡ ㉢ ㉣

- ① 상황, 완제품, 산업용, 언젠가
- ② 상황, 시제품, 산업용, 조만간
- ③ 장면, 완제품, 의료용, 언젠가
- ④ 장면, 시제품, 의료용, 조만간

16

下 [비문학]

[정답] ④

[풀이] 앞에서 3D 스캐너가 물체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으므로 ㉠에는 '장면'이 적절하다.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은 문제점과 개선점을 거쳐야 하므로 ㉡에는 '시제품'이 적절하다. 셋째 문단에서는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을 인체와 관련된 곳에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했으므로 ㉢에는 '의료용'이 적절하다. 현재는 3D 프린터가 일반 가정이나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곧 우리 생활에 녹아들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곧'의 의미인 '조만간'이 ㉣에는 적절하다.

[오답]

- ㉠ '완제품'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이다.
- ㉢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때에 가서는'이므로 불확실함의 뜻이 들어있다. ㉣에는 문맥상 '앞으로 곧'의 뜻이며 확실함의 뜻인 '조만간'이 더 적절하다.

17. 밑줄 친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합성어의 유형을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것은 합성어의 형성 절차가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나눈 것이다. 통사적 합성어에는 ‘명사 + 명사’의 구성을 취하거나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나 ㉠ ‘용언의 연결형 + 용언 어간’의 구성을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달리 어간이 어미 없이 바로 명사나 다른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 ① 들어가다                      ② 부슬비  
③ 불고기                        ④ 뉘푸르다

17

中 [이론문법]

정답 ①

풀이 ‘들어가다’는 동사 ‘들다’와 동사 ‘가다’가 연결어미 ‘-어’를 통해 결합하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 ② ‘부슬비’는 부사 ‘부슬’과 명사 ‘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불고기’는 명사 ‘불’과 명사 ‘고기’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뉘푸르다’는 형용사 ‘늙다’와 형용사 ‘푸르다’가 연결어미 없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18. 주제 통합적 읽기의 절차와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 ①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 자신의 관점 재구성 →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 관점의 비교, 대조와 평가  
② 관점의 비교, 대조와 평가 → 자신의 관점 재구성 →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③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 관점의 비교, 대조와 평가 →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 자신의 관점 재구성 →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④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 관점의 비교, 대조와 평가 → 자신의 관점 재구성

18

中 [비문학 독서]

정답 ④

풀이 ④가 주제 통합적 읽기의 과정이다. 나머지는 주제 통합적 읽기의 순서를 잘못 밝힌 것들이다.

참고 ‘주제 통합적 읽기’

읽기의 종류 중에서 ‘주제 통합적 읽기’는 고등학교 2학년 ‘독서’ 교과 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목이다. 주제 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화제나 주제,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쓰인 글들을 비판적·통합적으로 읽으며,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읽기를 말한다. 즉 독자가 자신의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화제 또는 주제,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글을 종합적으로 읽고, 관련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확장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심화된 읽기를 뜻한다.(2015년 개정, 고등학교 신사고 ‘독서’ 교과서 내용)

- ㉠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만든다.  
㉡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분야, 자료의 유형(서적, 인터넷 자료 등)이나 갈래 등을 고려하여 글과 자료를 선정한다.  
㉢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선정한 글과 자료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화제나 주제, 쟁점에 대한 필자의 관점, 관련된 주요 용어와 개념 등을 정리한다.  
㉣ 관점의 비교·대조와 평가: 각각의 필자의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며 관점이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 자신의 관점 재구성: 비교·대조하고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한다.

19. 밑줄 친 단어 중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은?

- ① 나는 그 팀의 우승을 축하하는 리셉션(reception)에 참석할 거야.
- ② 저 타우어(tower)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거야.
- ③ 이 광고의 콘셉트(concept)는 뭐니?
- ④ 그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가장 잘해.

19

下 【어문규정】

정답 ②

풀이 외래어 표기법 제8항에 따라 중모음 [ai], [au], [ei], [ji], [ou], [auə]는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예 time[taim] 타임, house[haus] 하우스, skate[skeit] 스케이트, oil[oil] 오일, boat[bout] 보트, tower[tauə] 타워

오답

- ① 리셉션(X), 리셉션(X), 리셉션(X)
- ③ 컨셉(X), 콘셉(X)
- ④ 프리젠테이션(X), 프레젠테이션(X)

20. 다음 글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된 표현 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남원(南原)에 양생(梁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萬福寺)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하였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성이며 낭랑한 목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쓸쓸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청춘에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었는데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 피리 소리

외로운 비취새 짝없이 날고  
짝 잃은 원앙새 맑은 강에 몸을 씻네.  
내 인연 어딤을까 바둑알로 맞춰 보고  
등불로 점을 치다 시름겨워 창에 기대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에서 —

- ① 대상에 빗대어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계절의 배경과 인물의 정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③ 인물이 처한 상황과 정조는 이별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우연과 같은 운명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물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20

下 【고전문학】

정답 ③

풀이 소설의 시작 부분이다. 주인공이 이별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생은 아직 여인을 만나지 않았다. 이생이 처한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조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별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 ①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짝 잃은 원앙새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 ② 계절적 배경은 봄이다. 계절은 화려한 봄이지만 양생은 외롭게 지내고 있다. 계절적 배경과 주인공의 처지가 대조되어 인물의 외로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양생은 바둑알로 맞춰 보고 점을 쳐서 자신의 인연을 찾고 있다. 운명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21. 다음 풀이한 말에 해당하는 표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문』 가스 상태의 빛나는 긴 꼬리를 끌고 태양을 초점으로 긴 타원이나 포물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운행하는 천체. 핵, 코마,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① 별뿔별                      ② 떠돌이별  
③ 셋별                        ④ 살별

21

상 [어휘 고유어]

[정답] ④

[풀이] 제시문은 '살별'에 대한 설명이다. '살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혜성(彗星)'의 고유어이다.

[오답]

- ① 별뿔별: '유성(流星)'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유성'은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 빛을 내며 떨어지는 작은 물체이다.  
② 떠돌이별: 중심 별의 강한 인력의 영향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중심 별의 주위를 도는 천체이다. 일상적으로는 '행성(行星)'으로 이른다.  
③ 셋별: '금성(金星)'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금성'은 태양에서 둘째로 가까운 행성이다.

[22~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모든 책을 별에 비유하여 세 가지로 구분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다른 별들의 중심이 되어 주는 ㉠ 항성 같은 책이 있는가 하면, 항성 주위의 궤도를 규칙적으로 도는 ㉡ 행성 같은 책이나 잠시 반짝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 유성 같은 책도 있다는 것이다. 항성과 행성은 언제나 밤하늘을 지키지만, 유성은 획 소리를 내며 은하계의 어느 한 구석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 북극성이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듯 항성과 같은 책은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지만, 반짝하고 나타나는 유성은 한순간의 즐거움만 제공하고 허무하게 사라진다.

우리 주변에는 유성 같은 책들이 지천으로 굴러다니고 있지만, 항성 같은 책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좋은 책은 세상살이의 일반성에 관한 이해를 넓혀 주는 동시에 개인적 삶의 특수성까지도 풍부하게 해 준다. 그런 이해와 해석이 아예 없거나 미약한, 고만고만한 수준의 책들만 거듭 읽다 보면 잡다한 상식은 늘어날지 몰라도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은 멀어지고 만다. 그렇고 그런 수준의 유성 같은 책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의 깊이와 두께는 늘 제자리걸음이다. 세상과 인생의 문제를 상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렇고 그런 책들은 옆으로 치워 놓고, 변화하는 세상과 그 속에 숨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좋은 책들을 찾아내야 한다.

22. ㉠-㉣의 한자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亢星                      ② ㉡ 行星  
③ ㉢ 流星                      ④ ㉣ 北極星

22

중 [비문학 한자]

[정답] ①

[풀이] 항성(恒 항상 항, 星 별 성) 『천문』 천구 위에서 서로의 상대 위치를 바꾸지 아니하고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 가운데 행성, 위성, 혜성 따위를 제외한 별 모두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며, 고유 운동을 한다. 북극성, 북두칠성, 삼태성, 견우성, 직녀성 따위가 있다. (≡ 불박이별, 정성)

[오답]

- ② ㉡: 행성(行 다닐 행, 星 별 성)  
③ ㉢: 유성(流 흐를 유, 星 별 성)  
④ ㉣: 북극성(北 북녘 북, 極 지극할 극, 星 별 성)

23.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극성은 항성에 포함된다.
- ② 쇼펜하우어는 모든 책을 항성, 행성, 유성으로 비유하였다.
- ③ 항성 같은 책은 개인적 삶의 특수성을 풍부하게 해석해 준다.
- ④ 유성 같은 책은 많이 읽어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23

下【비문학】

정답 ④

**풀이** 유성은 잠시 반짝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별이다. 쇼펜하우어는 유성과 같은 책은 한순간의 즐거움만 제공하고 허무하게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유성 같은 책을 읽어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오답**

- ① 북극성이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듯 항성 같은 책은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된다. 북극성은 항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모든 책을 별에 비유하여 '항성', '행성', '유성'인 세 가지로 구분했다.
- ③ 항성과 행성은 언제나 밤하늘을 지킨다. 쇼펜하우어는 항성과 같은 책은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된다고 설명했다. 둘째 문단에서 좋은 책은 세상살이의 일 반성에 관한 이해를 넓혀 주고 개인적 삶의 특수성 까지 풍부하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 글에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항성 같은 책을 설명한 것이다.

24. 다음 [㉠],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어젯밤에 공부하[ ㉠ ] 늦게 잤다.  
B: 사흘 밤낮을 하[ ㉡ ] 했는데 이 모양이다.

[ ㉠ ]                      [ ㉡ ]

- ① -노라고                  -노라고
- ② -느라고                  -느라고
- ③ -느라고                  -노라고
- ④ -노라고                  -느라고

24

中【어문규정 맞춤법】

정답 ③

**풀이** ㉠은 '공부하느라고'가 맞고, ㉡은 '하노라고'가 맞다. '-노라고'는 말하는 이의 말로, '자기 나름으로는 한다'고란 뜻을 표시하며, '-느라고'는 '하는 일로 인하여'란 뜻을 표시한다.

**예**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 하노라고 하였다. / 쓰노라고 쓴 게 이 모양이다.

**예**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 소설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 / 자느라고 못 잤다.

25. 다음은 소설 작품에 나오는 대포소리의 변화와 관련된 서술이다. 작중화자와 대포소리의 거리를 가까운 순서대로 정리한 것은?

- (가) - (생략) - 쿵! 하고 남쪽 멀리서 은은한 대포소리가 들려왔다.  
 (나) - (생략) - 쿵! 하고 또 다시 포소리가 들려왔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그리고 또다시 되돌아오는 소리.  
 (다) - (생략) - 또 한번 쿵 하는 포소리. 저 포소리만 없었어도 고 노인은 현을 불러내는 데 다시 한번 애를 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가오는 저 소리. 삶과 죽음! 그 어느 하나의 선택을 재촉하는 소리.  
 (라) 현은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하나의 소리를 들었다. 쿵! 하고 들려오는 포소리보다 가까운 하나의 울부짖음.

- ① (가) - (나) - (다) - (라)  
 ② (라) - (다) - (나) - (가)  
 ③ (다) - (나) - (가) - (라)  
 ④ (나) - (다) - (가) - (라)

25

下【현대문학】

[정답] ②

[풀이] 선우휘 작가의 소설 〈불꽃〉의 일부이다. 청각을 자극하는 대포소리는 가까이 있으면 크게 들리고 멀리 있으면 작게 들린다. (라)는 대포소리를 ‘가까운 하나의 울부짖음’이라고 표현했으므로 작중 화자와 (라)의 대포소리가 가장 가깝다. (가)에서는 ‘은은한 대포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므로 가장 멀리 들리는 소리이다. (라)가 처음이고 (가)를 마지막으로 한 선택지는 ②이다.

[참고] 선우휘, 〈불꽃〉

- 갈래: 중편 소설, 전후 소설
- 배경: 1919년 3·1 운동부터 6·25 전쟁까지 P 고을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문체: 박진감이 넘치면서 장중한 맛을 풍기는 문체
- 표현: 내적 독백, 의식의 흐름
- 제재: 근대사의 중요한 고비에서 방황하는 인간상
- 주제: 부정한 이념에 대한 행동적 저항으로의 결의
- 해설: 이 작품은 1956년 『문학 예술』에 발표된 작품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북한 공산당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고발하는 한편, 전쟁의 비극을 통곡하는 한 인간의 양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작품 구성이 박진감이 넘치고 인물의 심리를 내적 독백 형식으로 나타내어, 전쟁을 실감 나게 묘사하였으며, 삶과 전쟁 사이에서 비장미를 느끼게 한다.

**2020.7.18. 7급 총평**

|    | 유형        | 2020 | 비율   |
|----|-----------|------|------|
| 1  | 문학        | 5    | 20%  |
| 2  | 문법        | 4    | 16%  |
| 3  | 비문학       | 4    | 16%  |
| 4  | 어문 규정     | 3    | 12%  |
| 5  | 어휘        | 1    | 4%   |
| 6  | 관용어, 속담   | 1    | 4%   |
| 7  | 한자어, 한자   | 4    | 16%  |
| 8  | 한자 성어     |      | 0%   |
| 9  | 고전문법      |      | 0%   |
| 10 | 어법, 생활 국어 | 3    | 12%  |
| 계  |           | 25   | 100% |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군무원 국어 문제가 처음으로 정답과 함께 공개되었다. 군무원 9급 국어 문제는 복원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했지만, 군무원 7급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처음 접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는 7급 문제의 유형을 충분히 설명했고 기출을 풀어보았기 때문에 강의를 성실히 수강한 수험생들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굳이 어려운 부분을 꼽자면 한자(한자어)와 관련된 부분인데, 군무원 국어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한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 확실한 것은 7급 군무원 국어를 대비하려면 한자 공부에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한자 공부, 한자어 공부, 한자성어 공부 등 한자와 관련된 공부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부 문법 문제도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문법 공부는 9급이나 7급 모두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학에서는 지식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9급 군무원 국어에서는 2019년까지 암기형 문제가 계속 출제되었지만, 7급 군무원 국어에서는 지식형 문학 문제를 잘 출제하지 않았다. 7급은 작품을 감상하고 주제를 파악하여 문제에 적용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문제를 주로 출제해 왔다. 이번에는 김남조 시인의 시 <정념의 기>를 주고 소재의 상징적 의미, 시적 자아의 자세,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등을 엮어 출제했다. 평소 시를 읽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2019년까지 군무원 국어 7급도 9급과 같이 어문규정에서 출제를 많이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문규정의 문제를 줄였다. 이러한 경향은 9급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군무원 국어 시험에 어문규정이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많이 당부하였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공부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주었다. 2020년부터 '필기 50% + 면접 50%'가 최종합격이 되었으므로 필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거듭 말하지만 이제 군무원 국어 시험은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었다.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을 믿고 시험을 준비한다면 합격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